

구세주로부터 새로운 원소가 방출된다

이긴자 몸속에서 나오는 새로운 원소

지금까지 생명을 죽이는 물질이 세상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죽이는 영 자체가 바로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생명을 죽이는 물질이 이 세상을 지배해 왔지만 이긴자가 나온 다음부터는 바로 이긴자 몸속에서 새로운 원소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긴자 몸속 그 새로운 원소는 바로 하나님의 영의 원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물질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영의 물질인 이슬성신이 마귀를 여지없이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화학물질 가운데에도 중화시켜주는 물질이 있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영의 물질이 이 사망의 영인 그 독소 물질을 중화시켜서 완전히 독소를 제거하면 사람을 죽이는 생명을 죽이는 그 독소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거되지 않고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마음으로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세상의 많은 과학자들도, 많은 학자들도, 많은 박사들도 이긴자가 나오므로 새로운 물질이 창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사람이 처음에는 하얀 이슬만 내리다가 88년도부터는 보라색 이슬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제거하고 마귀를 소멸하는 완성된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완전히 제거할 무기

이 사람이 초창기에 말씀하기를 이제 이긴자의 영이 1초 1초 그 능력과 그 힘이 계속해서 상승되고 있지만 마귀의 영도 계속해서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승되는 비율이 이제 무량대수 배로 더 많은 능력과 많은 힘과 권세로 상승되고 있는고로 마귀가 따라올 수 없습니다.

이 마귀의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엎으면 마귀를 한 마리도 남기지 아니하고 완전히 죽여서 멸해버리고 제거해야만 이 세상을 뒤집어엎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제거하는 무기를 안 가지고 나와 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니까 우습게 여기고 혹시 말씀 말씀을 꾸며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여러 석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이 사람이 이제 그러한 무기가 없이 어떻게 공산주의를 뒤집어엎으며, 그런 무기가 없이 어떻게 태풍을 막을 수가 있으며, 그런 무기가 없이 어떻게 오는 비를 못 오게 하고 안 오는 비를 오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능력을 이제 발휘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고로 "이 세상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대낮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놓고 공공연하게 확신을 가지고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없이 이제 11년간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말씀, 말씀 할 때마다 자신에 차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긴자의 능력

그리고 이 지구 땅 위에 공기도 변화를 시키고 이 세상 만물도 변화를 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초창기에 논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한 변화를 안 시키고 변화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이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건 자연적인 현상이라 하겠지만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시면 알지만 공산주의를 만들까까지 많은 희



구세주 조희성님

생자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희생자뿐만 아니라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나라가 설립이 됐는데 그것을 순식간에 무너뜨린다면 이젠 굉장한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힘으로, 어떤 무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신인 마귀세계를 여지없이 죽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고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쉽게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은 우리 승리제단에 나오시는 분들이 강한 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무너뜨려야 그래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강한 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의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의 피로 이루어져

영생을 하는 그 영은 바로 강한 영이 영생을 하는 것입니다. 강한 영이 되려면

말할 수 없는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씨름 선수가 되려면 계속해서 씨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훌륭한 씨름 선수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마귀와 더불어 씨름을 해서 마귀한테 이기는 기술을 습득을 하고 마귀와 더불어 싸우면서 마귀의 허점과 약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점을 알아야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승승장구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바로 사망의 영을 이겨야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고로 이 사망의 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배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는 이긴자가 이제 그대로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으로서 하늘에서 꼭 떨어진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은 6000년 전부터 하나님이 6000년 전부터 이긴자의 피를 키웠던 것입니다. 6000년 전부터 키우지 않고는 마귀를

떨할 수 있는 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보지만 해도 마귀가 죽고 바라보지만 해도 모든 썩을 물건을 썩지 않는 물건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과 같이 썩을 물질이 썩지 않는 물질로 변한다는 것은 마귀의 영을 멸해버리는고로 마귀의 영이 멸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는 자신이 만만한 것입니다.

마음먹는 대로 피가 변한다는 말은 뭐냐면 바로 마음을 먹는 대로 새로운 물질이 창조된다는 말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보지만 해도 마귀가 죽고, 바라보지만 해도 모든 썩을 물건을 썩지 않는 물건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과 같이 썩을 물질이 썩지 않는 물질로 변한다는 것은 마귀의 영을 멸해버리는고로 마귀의 영이 멸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는 자신이 만만한 것입니다.

구세주는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

그리고 마음을 먹는 대로 새로운 물질이 창조되니까 이제 바로 사람, 사람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건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먹으면 바로 하나님의 피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변한다는 말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변한다는 말은 죽으려야 죽을 수 없는 피로, 죽으려야 죽을 수 없는 몸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이기는, 사망을 이기는, 마귀가 여지없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제 구세주라는 건 여러분들 이제 말하기는 쉬워드 구세주가 굉장한 존재인 것입니다. 구세주라는 건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야 구세주 자

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마음먹는 대로 피가 변한다는 말은 바로 인간의 마음에 의해서 이 공기가 형성되어 인간이 죽지 않는 확신의 마음을 가지면 바로 이 공기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희생적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영으로 공기가 변하는고로 하늘의 사람이 지구 땅아지게 되면 세계 모든 공기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천국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천국이라는 말이 사람이 했던 것입니다. 또한 천국 자체가 믿음이고, 믿음이 바로 승리하신 하나님의 영이요, 믿음 자체가 바로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바로 마귀를 이기는 영생하는 하나님의 영이 마귀를 이겨야만 영생하는고로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하신 영이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그 승리하신 영이 생명과일이요 승리하신 하나님의 영이 중생의 영,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이 되며 이제 부활함을 입은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세상 만물이 신이요, 물질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을 에워싸고 있는 물질은 바로 마귀의 영이라는 말을 어디에서도 들을 수가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학설 중에서도 새로운 굉장한 학설인 것입니다.

오늘날 분명히 이 세상의 모든 물질 자체가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이 과학적으로 논하는데 반론을 제기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1992년 5월 21일 말씀 중에서
원현욱 기자 정리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⑥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다

나홀과 나홀의 아내 밀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아브람과 롯을 배웅하기 위해서 멀리까지 따라나섰습니다. 나홀은 아브람이 배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서로 견인했습니다. 나홀의 아내 밀가도 아브람의 아내 사래에게 고맙다는 말과 함께 서로 눈시울을 붉힌 채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아브람은 아내 사래와 조카 롯 그리고 그의 종들과 재산, 양떼와 가족을 이끌고 고된 나그네 길을 떠났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고 황량한 사막시대(지금의 시리아 사막)를 지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당도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나무와 돌로 깎은 이상한 우상을 하나님 대신에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하는 일행들이 자칫 이방인들의 풍습에 물들까봐 염려되어 이곳저곳을 살펴보고 머물 곳을 찾았지만 어디로 가든지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계속 남쪽으로 이주하다보니 가나안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에 이르렀

습니다. 세겜 땅에 마므레(Mamre)라는 곳이 있었는데, 마므레(Mamre)란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뵈 수 있고 계시가 임하는 신성한 곳입니다. 거기에는 수풀이 우거져 있고 아직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았지만 얼마든지 양떼와 가족을 키우면서 정착하기 좋은 평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람과 그의 일행들은 짐을 풀고 이 마므레에서 긴 여정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마므레에서 천막을 친 후, 아브람은 마므레에는 상수리나무에 홀로 가서 그 나무그늘 아래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사모하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있는 아브람 앞에 여호와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곳에 돌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창세기 13장 4절).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나라와 그곳에 친 천막을 거두고 거기서 떨쳐 떨어진 번영 동편 산으로 옮겨와 다시 천막을 쳤습니다.

여호와와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하는 아브람을 시기한 공중신 마귀가 기근의 재앙을 내리다

아브람은 가족들과 함께 천막에 거주하면서 매일 새벽마다 돌제단을 쌓은 곳으로 달려가서 여호와와의 이름을 부르며

《1장 아브라함의 하나님》 ⑥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다



아브람이 하나님을 영접한 마므레 상수리나무 근처에 돌제단을 쌓고 경배하다

경배했습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 신은 아브람의 신실한 믿음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여 양떼와 가족들이 먹어야 할 풀들을 말라 비탈지게 만들고 채소와 먹을 물도 구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흉

년이 들어 먹을 양식이 떨어지자 아브람은 살 길을 찾아 애굽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람은 '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흉년들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하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브람은 꿈이 생각하기를 '분명히 심한 기근은



애굽 왕이 아브람의 아내 사래를 돌려주는 동시에 시녀 하갈도 주다
"Pharaoh Gives Sarah Back to Abraham," Isaac Isaacsz (1640)
<https://www.bibleodyssey.org/en/tools/image-gallery/abraham-sarah-pharaoh>

마귀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지, 자비로운 하나님이 일으킨 것이 아닐 것이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궁전의 시녀 하갈이 아브람의 아내 사래를 여주인으로 섬김

아브람이 가뭄을 피해 애굽에 잠깐 머무는 동안 아내 사래의 시중을 들 수 있는 애굽 출신의 여종 하갈을 우연찮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갈은 사래를 여주인으로 섬겼습니다. 애굽에 거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만 아브람과 애굽의 바로 왕 사이에 뜻하지 않는 일이 생겼는데, 그것은 애굽 왕이 사래의 미모에 반하여 사래를 후궁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을 주장하여 그의 헛된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애굽 왕은 자신의 과실을 뒤늦게는 대가로 아브람에게 궁전의 시녀 하갈(Hagar)을 주면서 "하갈이 사래를 여주인으로 섬길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우거하려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람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애굽을 떠나 돌이켜 올라오니 그가 처음으로 돌제단을 쌓은 곳이었습니다. 마므레 상수리나무 아래에 쌓은 돌제단 앞에서 여호와 이름을 은밀하게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아브람이 예전과 같이 소리를 내어 여호와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까닭은, 첫 번째로 시기하는 마귀가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는 오직 여호와와 하나님께만 상달되는 기도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안젤라